

편모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에 대한 지각

고 성 혜*

한 유 진**

- I. 문제제기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V. 결론 및 제언

I. 문제제기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의식 함양에 있어서 가정 환경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가족내 질서가 잡혀 있지 않거나, 지나치게 경직되어 가족내 규칙을 준수하도록 강요한 다거나 가족의 분위기가 차갑고 가족간에 유리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자녀는 신경증이나 반사회적 행동, 특히, 폭행, 비도덕적

행동, 광기라고 할 만큼의 열광, 비행 친구와의 동조, 퇴행 경향 등의 징후를 보여,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은 선행 연구에서 계속 지적되어 왔다.

1990년도 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편모 가족은 전체 가구의 10.2%이며, 1985년도에 비해 30만 7천가구나 많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아버지의 존재가 실질적, 상징적으로 중시되는 우리나라 문화권내에서 아버지가 없는 경우, 아버지라는 강력한 지주의 결여로 인해 가족의 사회 적응력이 저해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국여성개발원(1988)의 연구에 의하면, 편모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약 90% 정도이며,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가짐에 따라 가사나 자녀양육을 수행할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하여, 아직 부모의 관심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자녀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 많아지게 된다. 만약 자녀에게 부과되는 사항이 감내할 수위를 넘어서면, 자녀는

* 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박사과정

무관심과 소외감, 빈곤에 따른 성취욕구 충족시의 좌절감 속에서 헤어날 수 못하거나 이에 따른 반사작용으로, 탈선하기 쉽다. 편모가정 청소년의 인성, 인지양식 등을 다룬 연구(이우신, 1982 : 김순애, 1987 : 김정삼, 1990 : 정경숙, 1990)에서도 편모가정의 청소년이 양부모가정의 청소년보다 자아개념이 부정적이고, 활동성, 안정성과 사회성이 낮으며, 보호자의 사망이나 유실은 자녀의 문제행동 유발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편모가정은 청소년에게 부담을 주고, 발달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면, 편모가정이 실생활에서 경제적, 자녀양육상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곧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일반적으로 부결손 청소년의 인성이나 행동등에 대해 왜곡되게 보고 차별대우를 함으로써, 감수성이 높고 감정이 격하기 쉬운 청소년들이 불안감, 수치심과 열등감을 느끼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주장이다. 사회적 통념상, 아버지가 없는 자녀가 문제 행동을 더 일으킨다는 생각은 편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서 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은 편모가정이 직면하게 되는 또 다른 과제라는 것이다. 청소년 자녀의 부적응은 구조적 결손 그 자체보다 이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는 주장은 구조적 결손 자체보다 부모간의 갈등과 불화가 심한 경우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치명적이라는 관련 연구(석말숙, 1989 : 박소영, 1991)의 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 즉, 부모간의 갈등과 불화가 계속되는 가정내에서 적대적 관계속에 휘말리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희생되는 경우보다는 차라리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편모가정 자녀의 인성이나 인지양식은 양부

모가정 자녀와 유의있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 역시 구조적 결손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렇듯 편모라는 가정환경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구조적 결손이 자녀의 인성, 인지양식, 학업성취, 정신건강상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고, 과거 우리 어머니들의 모성애는 매우 강하고, 자녀가 어머니 자신의 가족내 입지를 강화시켜 준 한국 가족의 독특한 가족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편모가정은 우려할 만큼의 위험 수위는 아닐 것이라는 시각에서 구조적 결손의 영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어떤 입장을 지지하든 청소년기는 가족생활 단계상 가족 기능의 점검이 필요한 시기로 가정환경의 탐색은 필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편모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환경과 양부모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환경을 비교해 봄으로써, 가정환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편모가정을 지원하고 편모가정 청소년의 행동을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환경 개념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운명적으로 소속되고, 발달상 요구되는 경험과 자극을 제일 먼저 제공받게 되며, 학습하게 되는 교육의 장으로서, 인간은 가정환경을 통해서 전생애의 적응을 결정하는 습성, 습관, 태도등을 갖게 된다(진원중, 1983).

가정환경은 학자마다 다소 다르게 분류하지만,

정원식(1974)의 분류를 따라 4영역으로 나누는 경우가 가장 보편적이다(정경숙, 1990 : 이정우, 1992).

정원식(1974)은 가정환경을 물리적 환경, 가정의 가치지향성, 가정의 집단 성격과 심리적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가정의 물리적 환경은 거주지의 환경, 가족의 크기, 경제적 지위, 내부 문화 시설 등이다. 가정의 가치지향성은 가족 구성원이 생활 원리로 시사받고 이로 인한 행동의 규제를 받으며 또 이로부터 이탈할 때 죄의식을 느끼는 가정의 지배적인 가치체제로, 사회상승주의, 물질지향주의와 전통주의 등이 포함된다. 가정의 집단 성격은 인간관계의 측면에서 본 한 집단으로서의 가정의 심리적 특징으로, 여기에는 부모에 대한 역할 기대, 가족구성원 상호간의 태도, 가정의 응결력 등이 포함된다. 가정의 심리적 과정은 가족 구성원이 가정내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지각하는 심리적 자극 또는 압력으로서, 성취-비성취,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원식의 가정환경 분류를 참고로 하되, 가정환경은 크게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구성하였다.

가정의 물리적 환경은 주관적인 면과 객관적인 면으로 나누었다.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객관적 측면은 가족원의 교육수준, 직업, 연령, 성별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롯해 가계소득, 거주지역, 가족수, 사용하는 방의 수 등이 포함된다. 물리적 환경에 대한 주관적 측면은 경제적인 곤궁도와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 등이 포함된다.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두 영역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집단으로서의 가족의 분위기를 대표할 수 있는 가족원간의 응집성, 적응성과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감이며, 다른 하나는 어머니의 구체적 양

육행동이다. 응집성은 집단 구성원들간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에 기초를 둔 심리적, 정서적 유대로, 가족의 공동 시간과 개인의 사적 시간을 허용하는 정도, 가족의 공동 공간과 개인의 사적 공간을 허용하는 정도 등으로 나누어 파악될 수 있다. 가족의 적응성은 가족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변화하는 가족의 능력으로, 가족규칙 적용상의 융통성, 리더쉽의 유형, 부모의 자녀훈육 방식, 역할 분담등으로 나누어 파악될 수 있다. 가족에 대한 부담감은 개인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족의 집단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감을 구성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특히 청소년 자녀가 어느 정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파악하고 어머니의 행동개선을 제안하기 위해 자녀의 발달을 저해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만을 다룬다. 여기에는 어머니가 폭음, 도박, 외도, 충동적 행동을 하는 경우와 자녀에게 형식적, 물질적 가치, 출세지상주의적 가치 등이 속하며, 어머니의 무관심, 모순형, 간섭형, 어머니의 부정적 가치, 형식주의, 과잉기대와 강요, 편견과 거부적 양육행동이 포함된다.

2. 편모 가정환경의 특성

1) 물리적 가정환경

199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분포상, 전체 11,355천 가구 중 여성 가구주인 경우는 1,787천 가구, 15.74%에 이르러 1985년도의 15.8%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이혼이나 사별로 편모 가족이 된 경우는 약 1,156천가구, 전체의 10.18%를 차지하여 1985년도 849천가구, 8.9%에 비해 307천 가구 정도가 증가하였다.

편모가정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편모가정

이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편모가정 또는 결손가정 자녀의 인성이나 학업성취, 적응양식을 다룬 연구는 많은데 반해, 상대적으로 물리적 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여성개발원(1984)의 편부모가족 연구는 편부모 가족이 안고 있는 경제적, 정서적, 대인관계, 자녀문제를 폭넓게 다루었을 뿐 아니라, 편부모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다루었다. 이 연구에 의하면, 편모의 평균 연령은 46.9세이며, 편부모의 교육수준은 국졸 이하가 74.9%이며, 직업은 농어업직이 45.1%, 서비스직, 판매직, 생산직이 각각 17.4%~15.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부모가족의 평균 자녀 수는 4명이며 편부모 가족의 평균 가족원 수는 3.9명으로 나타나 편부모는 평균 3명을 부양하고 있었으며, 저소득 편부모 가족이 70.6%에 이르러, 경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성개발원(1988)에서 시행된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편모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90.1%로 매우 높고, 조사대상의 60.7%가 방 1개에서 전가족원이 거주하며, 방 1개당 거주인원은 2.8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평균 자녀 수는 3.50명으로 나타났다.

백경희(1989)의 저소득층 편모가정에 대한 연구 결과 역시, 가구주가 생산직, 서비스직, 행상 또는 노점, 파출부, 청소부 등 대부분이 하위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지출하기 때문에 생계 유지가 더욱 힘들며, 이들 편모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악순환적 빈곤 현상은 교육수준의 저하, 미숙련 기술로 인한 취업 기회의 제한, 열악한 건강 상태, 자녀진학의 제한등에 기인되어 빈곤의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McLanahan과 Booth(1989)의 연구에서도 편모가정과 양부모가정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경제수준의 차이로 나타났다. 양부모가정의 1/10이 빈곤선 이하인 반면, 편모가정은 1/2이 빈곤선 이하의 경제상태를 보인다. 이처럼 편모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편모의 대부분이 임시직이나 시간제로 일하고 있어 직업이 불안정하고 정식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남성봉급의 60%에 불과하는 봉급을 받으며 자녀 양육의 부담까지 안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가정생활의 기초인 경제적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존을 위해 가족원 특히 자녀에게 희생을 요구하게 되며, 실업 상태와 물질적 재정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청소년의 가정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게 된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발달을 제한하게 되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발하게 되므로(원호택, 1991 : Perry & Bussy, 1987) 물리적 환경이 중요하며,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심리적 가정환경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의 분위기 하에서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에게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바로 인식하여 주어진 사회 여건 속에서 잘 적응할수 있는 환경이 된다. 또한 자신의 역할을 찾아내고 통합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갖게 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정립할 수 있고, 문제행동의 발생을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가족간의 갈등이 많고, 부모간의 상호 지각 차이가 크고, 가족이 설정한 목표나 가치 규범을 준수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거나 가족간의 일체감, 연대의식도 희박하며, 서로 수용적이지 않을 때, 청소년은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은혜, 1984 : 석말숙, 1988).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요소

는 응집성, 적응성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편모가정이라는 환경 역시 경시될 수 없는 요인이다. 편모가정이라는 구조적 결손자체보다 아버지가 없는데서 오는 허전감, 결손을 둘러싼 대인관계가 주는 정신상의 왜곡된 자극 등은 자녀들을 왜곡화시키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 대로 편모가정의 경제 문제는 매우 심각하고, 빈곤과 박탈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편모는 배우자 상실로 인한 정신적 충격, 경제, 사회적 문제와 그로 인한 자녀양육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김혜선, 박혜인, 옥선화, 1993). 경제적 궁핍과 가계소득의 불안정으로 인한 긴장, 열등감과 독신 생활로 인한 불만으로, 편모는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녀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해 자녀의 반항적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황옥자, 1980).

편모가정내 자녀의 적응을 자녀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연구(Hetherington, Cox & Cox, 1982)에 의하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적응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편모 가정의 딸은 사춘기가 되면서 이성과의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춘기 동안의 아버지의 부재는 여성으로서의 자아개념의 발달을 저해하고, 공격적 충동이나 정서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응상 어렵다고 보기도 한다. 반면에 편모가정의 남아가 여아보다 적응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보고한 연구(Bank, Forgatch, Patterson과 Fetrow, 1993)도 있다. 남아가 문제를 많이 직면하게 되는 원인으로 편모가정의 빈곤 또는 강압적태도, 어머니의 반사회적 행동과 유사한 자녀의 행동간의 직접적 관계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박문용(1987)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환경 요인 중 응집력과 친애 요인, 성취 요인, 물질지향, 역할 기대, 자율 요인은 결손가정과 정상가정 자녀

간의 유사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학교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이정우(1992)의 연구 결과에서는 양부모가정 아동과 편모가정 아동이 지각한 가족의 응집력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친애 차원과 사회상승적 가치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편모가정의 친애력은 양부모가정의 경우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사회상승적 가치는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모가정의 대부분이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층에 속하므로 상향이동에 대한 갈망과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Amato(1987)는 가족유형을 편모가정, 계부모가정, 양부모가정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그 결과 편모가정의 자녀들은 양부모가정의 자녀보다 침대정리, 방청소, 설거지 등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하였으며 양부모가정과 비교하여 편모가정의 가족 응집성은 낮게 나타나, 이정우(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강해구(1987)의 연구에 의하면, 편모가정의 자녀가 양부모가정의 자녀에 비해 어머니에게 보다 협조적이고 모친의 수고와 건강에 관심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양득일(1990)의 연구에 의하면 양부모가정과 부결손가정내 아들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복종적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딸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거부적, 모순적 태도와 과잉기대 측면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Hetherington 등(1982)과 Wallerstein 과 Kelly(1980)의 연구에 의하면, 편모는 그들의 자녀들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하고 애정적이지 못하며 양육방법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처벌적이며 미성숙한 요구를 자녀에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imon, Beaman, Conger 와 Chao(1993)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낮은 편모는 사회적 지지망의 부조에 근접하

기 어렵고, 심각한 경제 압력을 받게 되며 부정적 사건에 많이 노출되어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부적절한 양육 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심리적 환경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편모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가족의 응집성이나 적응성 및 어머니의 양육 행동 차원에서 다룬 연구는 미흡하고, 관련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편모가정 청소년이 지각하는 물리적, 심리적 가정환경과 양부모가정 청소년이 지각하는 물리적, 심리적 가정환경과의 비교를 통해 편모 가정환경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편모가정 청소년과 양부모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물리적 환경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1. 편모가정 청소년과 양부모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객관적 물리적 환경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1-2. 편모가정 청소년과 양부모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주관적 물리적 환경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편모가정 청소년과 양부모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심리적 환경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1. 편모가정 청소년과 양부모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감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2. 편모가정 청소년과 양부모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적응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3. 편모가정 청소년과 양부모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응집성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4. 편모가정 청소년과 양부모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분석 자료 특성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정환경에 대한 지각을 파악하기 위해 이영숙·고성혜(1994)의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일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 2265부 중에서 편모가정이라고 응답한 101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비교 집단 선정을 위해 편모, 편부, 계부모, 고아를 제외한 정상가정 2065부 중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무선적으로 101부를 추출하여 총 202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삼았다.

최종 분석 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편모 가정의 경우 남학생이 44.6%, 여학생이 55.4%, 양부모 가정은 남학생이 50.6%, 여학생이 40.4%이다. 교급별로 볼 때, 편모 가정 자녀는 실업계가 43.7%로 나타나 양부모 가정의 18.1%보다 2배 가량 높은 비율이다(표 1 참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가정환경의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분석하고자, 앞서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물리적 환경의 객관적인 면은 가족 수, 사용하는 방의 수,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계소득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물리적 환경의 주관적인 면은 주거의 안정성, 집의 문화시설, 가정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편 모		정 상	
변 수	집 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성 별	남	45(44.6)		51(50.6)	
	여	56(55.4)	계(100%)	50(49.4)	계(100%)
고 급 별	중학생	27(26.7)		36(35.2)	
	인문계고등학생	39(38.6)		47(46.7)	
	실업계고등학생	35(34.7)	계(100%)	18(18.1)	계(100%)

경제 상태에 관한 만족, 부담감등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 불만족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α 는 .65이다.

가족의 심리적 환경은 집단으로서의 가족의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가족의 응집성, 적응성,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감으로 재구성하였다. 재구성된 14문항은 5점 척도로서,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 α 는 .79이다. 심리적 환경 중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는 이영숙·고성혜(1994)의 연구에서 사용한 50문항의 척도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다만, 이전의 연구에서의 척도는 명목 척도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유발하고 정신건강을 해치는 부적절한 양육태도 50문항과 각 하위영역에 걸쳐 카운트 작업을 통해 모든 변수별로 어머니의 모습이라는 관찰치를 선택하여 새로운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수를 만들었다.

한편, 각 연구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변수별로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해 전반적 수준을 파악하였고, 편모가정과 양부모가정의 차이는 t검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편모가정의 물리적 환경

편모가정의 객관적인 물리적 환경을 정상가정과 비교하여 제시하면 〈표 2〉과 같다.

거주지역별로 살펴보면 편모가정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각각 33.7%, 서울시 15.8%, 군지역이 16.8%이고 양부모가정도 이와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어 중소도시가 가장 많은 34.5%, 대도시 25.5%, 서울시 22.8%, 군 17.4%의 순이다.

편모의 평균 연령은 44.4세로 양부모 가정 어머니의 43.2세보다 높고, 41세이상 45세 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인 45.4%로 나타났다.

편모의 교육수준은 국졸이 33.7%로 가장 많고 중졸 32.7%, 고졸이 24.8%, 대졸 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부모가정 어머니의 경우 고졸이 3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국졸이 18.5%라는 것과 비교할 때 편모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다.

편모의 취업률은 84.7%로서 양부모가정 어머니의 취업률이 45.6%이며 1992년도 15세 이상의 여성 경제활동 인구 중 여성 취업률이 46.3%

〈표 2〉

객관적인 물리적 환경

변 수	집 단	편 모		양 부 모	
		빈도(백분율)		빈도(백분율)	
성 별	남	45(44.6)		50(50.6)	
	여	56(55.4)	계(100%)	50(49.4)	계(100%)
거주지역	서울시	16(51.8)		23(22.8)	
	대도시	34(33.7)		25(25.2)	
	중소도시	34(33.7)		35(34.5)	
	군	17(16.8)	계(100%)	18(17.4)	계(100%)
교 급 별	중학생	27(26.7)		36(35.2)	
	인문계고등학생	39(38.6)		47(46.7)	
	실업계고등학생	35(34.7)	계(100%)	18(18.1)	계(100%)
어머니 연령	35세이하	1(1.0)		2(2.1)	
	36~40세	17(17.2)		28(27.2)	
	41~45세	45(45.4)		44(43.5)	
	46~50세	28(28.3)		21(21.2)	
	51세이상	8(8.1)	계(100%)	6(6.0)	계(100%)
어머니 교육수준	국졸	34(33.7)		19(18.5)	
	중졸	33(32.7)		30(29.4)	
	고졸	25(24.8)		40(39.2)	
	대졸이상	4(4.0)	계(100%)	10(10.0)	계(100%)
어머니 직업	전문관리직	5(5.1)		3(3.0)	
	판매서비스직	37(37.8)		18(19.0)	
	사무직	7(8.4)		4(3.7)	
	생산노무직	19(19.4)		10(9.9)	
	농업	15(15.3)		10(9.9)	
	주부	15(15.3)	계(100%)	53(54.4)	계(100%)
가 족 수	2인이하	5(5.0)			
	3인	40(39.6)		3(3.4)	
	4인	28(27.7)		37(36.5)	
	5인	21(20.8)		34(33.3)	
	6인이상	6(4.0)	계(100%)	26(26.5)	계(100%)
방 수	2개이하	45(44.6)		20(19.7)	
	3개	36(35.6)		58(57.1)	
	4개	16(15.8)		17(17.6)	
	5개이상	2(4.0)	계(100%)	5(6.5)	계(100%)
가계소득	70만원 미만	39(41.9)		11(11.5)	
	70~100만원 미만	25(26.9)		17(18.3)	
	100~150만원 미만	13(14.0)		28(29.9)	
	150~200만원 미만	10(10.8)		20(21.3)	
	200만원 이상	6(6.5)	계(100%)	18(19.0)	계(100%)
조부모와 동 거	동거	10(10.1)		21(21.1)	
	비동거	89(89.9)	계(100%)	79(78.9)	계(100%)

라는 점과 비교해 볼 때, 취업율은 매우 높다. 그러나 편모의 직업은 판매 서비스직 37.8%, 생산 노무직 19.4%, 농업 15.3%로 이 세 직종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전문기술직, 관리직, 사무직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편모의 낮은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편모가정의 평균 가족수는 3.90명으로 양부모 가정의 평균 가족수 4.96명과 비교하여 1명 차이가 났다. 편모와 한 자녀만이 사는 경우는 5%에 불과하고, 평균 3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편모에게 부과되는 책임이 과중하리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편모가정에서 사용하는 방의 수는 평균 2.75개이고 2개이하가 44.6%로 가장 많았다. 편모 가정의 월 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70만원 미만인 경우는 41.9%로 가장 많고, 70만원이상 100만원미만은 26.9%로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이 68.9%나 차지해 양부모가정의 29.8%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이처럼 편모가정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편모의 학력이 낮고, 대부분 하위서비스직, 단순생산 노무직, 농·어업직에 종사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객관적인 물리적 환경들은 편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 나타내는 것이다.

편모 자녀와 양부모 자녀의 가정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을 t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은 편모가정과 양부모 가정 자녀간에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편모가정의 청소년이 양부모가정의 청소년보다 물리적 환경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주거의 안정성에 대한 두 집단간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집의 문화시설 부족과 가정경제 상태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편모가정 자녀는 집의 문화시설 부족, 공부방 부족, 어머니 직장의 불안정성, 생활비나 학비 걱정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어머니가 생활비나 학비 걱정을 하신다는 반응은 45.5%로 양부모가정의 23.9%와 비교하여 2배 가량 높았다. 이는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생활비나 학비가 많이 드는 시기인 반면 편모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낮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더 많이 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편모가정의 심리적 환경

편모가정 자녀가 지각한 심리적 환경을 집단으로서 가족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가족 부양 부담, 가족의 응집성, 가족의 적응성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집단으로서의 가족의 분위기

편모가정과 양부모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감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에 의하면 편모가정의 자녀와 양부모가정 자녀의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편모가정의 자녀는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부담, 어머니의 건강, 부양에 대한 불안 등 어머니의 노후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모가정인 경우, 어머니의 평균 연령이 다소 높고, 양부모가정보다 경제 사정도 열악하며, 부부중심의 사회에서 홀어머니가 맞이해야 할 노년에 대해 청소년 자녀가 심리적 부담감을 더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

편모가정과 양부모가정 청소년이 각각 지각한 가족의 적응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

〈표 3〉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t값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	편모 가정	15.44(4.40)	-3.02**
	양부모 가정	13.44(4.89)	

** P<. 01

〈표 4〉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감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t값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감	편모가정	8.57(3.14)	-4.28***
	양부모가정	6.82(2.60)	

*** P<. 001

〈표 5〉 가족의 적응성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t값
가족의 적응성	편모가정	19.32(3.66)	2.18*
	양부모가정	20.41(3.39)	

* P<. 05

기 위하여 t검정한 결과, $P <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편모가정의 자녀는 양부모가정의 자녀보다 자신의 가족을 가족내 질서가 잡혀 있지 않고, 가족원간의 협상 능력이 부족하며, 훈육방식면에서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 특히, 가족을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25.8%로 편모가정 청소년의 1/4이 가족 지도력에 대한 혼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분적으로 아버지의 역할 부재로 설명될 수 있다. 자녀가 청년기에 이르면, 학업이나 진로 선택 등 여러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요구되고, 이에 대한 상담은 아버지의 역할로 기대되는데, 조사대상의 편모는 사회적 감각이 부족하여 충분히 상담자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가족내 스트레스를 혼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의 적응성 차원에 대해 양부모가정의 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으로 지각한 것

으로 보인다.

편모가정 청소년과 양부모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응집성 차이를 검정한 결과, 편모 가정의 응집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문항별 분포를 살펴보면 편모가정의 응집성과 양부모가정의 응집성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부모가정 청소년은 가족끼리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경우가 62.3%, 가족끼리 서로 믿고 의지한다는 경우가 57.7%, 자신의 집에 태어난 것에 만족한다는 경우가 57.5%로 나타났다. 한편, 편모가정 청소년은 가족끼리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경우가 64.4%, 가족끼리 서로 믿고 의지한다는 경우가 68.3%, 자신의 집에 태어난 것에 만족한다는 경우가 54.5%로 나타나 편모가정의 청소년들이 선입전과는 달리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편모가정의 외적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내의 결속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을 수 있으며, 이는 편모가정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편모가정과 양부모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정한 결과, 두 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하위영역별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모순형, 편견과 거부 영역에서 $P < .05$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 즉, 양부모가정

의 청소년보다 편모가정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일관성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에게 말과 행동이 다른 모순되는 행동을 많이 보이며 편애와 비교가 심하고 거부적이라고 보았다.

편모가정의 청소년의 응답을 문항별로 살펴보면, 어머니가 바른 행동과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자녀에게 강조하지만 어머니 자신은 지키지 않고 일관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경우가 57.1~60.3%, 어머니가 타당한 이유없이 때리거나 질책하면 신경질을 잘 낸다는 경우는 58.5~60.0%로 나타났다. 편모의 84.7%가 작업 여건이 나쁜 하위직에 종사하고 가족의 생계와 가장으로서

〈표 6〉

어머니의 양육행동

변 수	집 단	평균(표준편차)	t값
어머니의 양육행동	편모가정	11.69(7.02)	-1.94
	양부모가정	9.83(6.45)	

〈표 7〉

하위영역별 어머니의 양육행동

하위영역	집 단	평균(표준편차)	t값
무관심	편모가정	2.49(2.08)	-1.73
	양부모가정	2.02(1.75)	
모순형	편모가정	2.15(1.94)	-2.45*
	양부모가정	1.54(1.59)	
간섭,관여	편모가정	1.45(1.24)	-.59
	양부모가정	1.34(1.22)	
형식주의	편모가정	.66(.90)	-.54
	양부모가정	.60(.83)	
부모의 부정적 태도	편모가정	1.23(1.50)	-1.73
	양부모가정	.90(1.18)	
과잉기대와 강요	편모가정	1.39(1.21)	1.17
	양부모가정	1.61(1.47)	
편견과 거부	편모가정	1.62(1.33)	12.55*
	양부모가정	1.17(1.18)	

* $P < .05$

의 책임을 혼자 져야 하며,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쌓이는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줄 만한 지원 체계가 부족하므로, 자녀에게 일관성없이 대하고, 자녀에게 거부적 행동을 표출했으리라 예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편모가정 환경을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나누어 알아봄으로써,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족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편모가정 101명과 비교집단으로 양부모가정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편모가정의 물리적 환경은 양부모가정에 비해 여러 면에서 열악하다. 편모가정의 빈곤 상태는 장기화되기 쉽고, 이들 청소년은 박탈감 및 체념주의적 사고에 빠져 일탈 행동을 보일 수 있으므로, 이들 환경의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 체계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편모가정의 경우, 어머니 대상의 다양한 종류의 직업 교육을 통해 취업 기회가 확대되고, 취업의 지속성 및 안정성 및 최저 생계비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편모가정의 청소년은 가족내 질서가 잡혀 있지 않고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지각하고, 가족 부양의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가족으로의 결속력은 약하지 않았다. 물리적, 심리적 여건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편모가정의 정서적 유대감이 양부모 가정에 비해 나쁘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구조적 결손 자체가 곧 문제행동 발생의 원인으로 간주되고 취약한 구조에 속한 개인에 대해 사실의 진위에 상관없이 부정적 행위자로 낙인찍는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개인의 발달 가능성이 제한받게 되는 등 폐해가 심한 우리 문화권에서, 본 연구

의 결과는 이러한 시각을 부분적이거나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편, 편모가정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다고 해서 이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편모 가정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일관성 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자식에게 말과 행동이 다른 모순되는 행동을 많이 보이며 편애와 비교가 심하고 거부적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편모가정내 정서적 유대감이 높으면서 어머니가 문제가 되는 양육행동 또한 많이 한다는 것은 모순된 결과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비록 편모가 자녀에게 다소 부정적인 행동을 해도, 편모가정 청소년은 편모 대부분이 열악한 작업 환경 속에서 일하고, 가족내 책임이 과도하며, 가족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줄 만한 지원 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청소년 스스로가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을 더 느끼게 되고, 가족의 응집성이야말로 가족을 지탱해 주는 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심리적인 결속력도 최소한의 물적 기반이 보장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음을 상기할 때, 편모가정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은 재차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결손 시기와 결손 기간, 결손 이유에 대해 조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 요인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 결과 편부가정의 사례가 적어 다루지 못했으나, 편부가정은 심리적 환경면에서 어머니의 부재로 인한 많은 문제가 예상되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편부가정을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양부모집단, 편모집단, 편부집단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집단이 직면하게 되는 어려운 가족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해구. 1987. 「결손가정 고교생과 정상가정 고교생의 가족 및 자아에 대한 개념 비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애. 1987. 「결손가정 아동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삼. 1990. 「정상가정 아동과 편부모 아동의 인성특성 비교」 전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선·박혜인·육선화. 1993. 「가족관계학」.
- 대한통계협회. 1990.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 제 1권 전국편.
- 박문용. 1989. 「결손가정자녀의 가정환경요인과 적응요인간의 관계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소영. 1991. 「어머니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청소년기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경희. 1987. 「빈곤모자 가족복지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석말숙. 1988. 「문제행동 청소년 가족과 일반가족간의 가족역동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은혜. 1984.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아동의 행동 장애에 관한 상관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양득일. 1990. 「어버이와 자녀간의 태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호택. 1991.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 숙. 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우신. 1982. 「결손가정과 일반가정 중학생의 성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원영. 1984.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연관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정우. 1992. 「결손가정아의 가정환경 요인과 성격 요인간의 관계연구 - 국민학교 부결손아·모결손아를 중심으로 -」 전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하경. 1985. 「부와 모의 양육태도 및 일치여부가 아동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 정경숙. 1990. 「결손가정학생의 가정환경 및 성격특성」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여성개발원. 1984. 편부모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 _____. 1988. 저소득층 모자가족에 관한 연구.
- 황옥자. 1990. 「부모의 이혼이 자녀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mato, Paul, R. 1987. "Family Processes in One-Parent, Stepparent, and Intact Families: The Child's Point of 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327~337.
- Bank, L., Forgatch, M.S., Patterson, G.R., & Fetrow, R.A. 1993. "Parenting Practices of Single Mothers: Mediators of Negative Contextual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71~384.
- Hetherington, E., Mavis, M.Cox., & R.Cox.

1982. "Effects of divorce on parents and children.": In Michael Lamb(ed.). Non-traditional Families :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 McLanahan, S., & Booth, K. 1989. "Mother-Only Families : Problems, Prospects, and Poli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557~580.
- Perry, D.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 Prentice Hall, Inc.
- Ronald, L., Beaman, J., Conger, R.D., & Wei Chao. 1993. "Stress, Support, and Anti-social Behavior Trait as Determinants of Emotional Well-Being and Parenting Practices Among Single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85~398.
- Wallerstein, J. S.,& Kelly, J.B. 1980. "Surviving the Breakup : How Children and Parents Cope with Divorce." London: Grant McIntyre.